

프로농구 서머매치 “팬들 위한 흥미로운 경기할 것”

지난 시즌 정규리그 1~4위팀 참가

29~3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조기 시즌을 마무리했던 프로농구가 이벤트 성격의 락 ‘서머매치’를 통해 팬들에게 돌아온다.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은 18일 강남구 KBL센터에서 2020 현대모비스 서머매치 대진 추첨식을 가졌다.

이번 이벤트 매치에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1~4위 네 팀이 참가한다. 정규리그 공동 1위를 차지한 원주 DB와 서울 SK, 3위 안양 KGC인삼공사, 4위 전주 KCC다.

이정대 KBL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즌을 일찍 끝났다. 팬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던

시점에서 (조기 종료패) 아쉽다”며 “이번 매치는 조기 종료된 지난 시즌에 대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새로운 시즌을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팬들에게 여름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진 추첨 결과, 지난 시즌 공동 1위 SK와 DB가 각각 KCC, KGC인삼공사와 첫 판에서 만난다.

29일 토너먼트 2경기를 치르고 30일 결승전을 갖는다.

우승 상금은 1000만원으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상범 DB 감독은 “부상자들이 많아 그동안 재할에 많은 신경

을 기울였다. 서머매치는 스포츠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문경은 SK 감독은 “이벤트인 만큼 농구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싶다. 또 팀 운영에 있어선 연습이 되고, 승리도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고 했다.

전창진 KCC 감독은 “우리 팀은 이적생들이 많다.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다가서겠다. 대회를 마친 후 KBL에 감사하다”고 했다.

김승기 KGC인삼공사 감독은 “첫 경기 상대가 DB인데 항상 재미있는 경기를 했다. 이번에도 기대해 달라”며 “선수들의 몸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대회 장소는 SK의 홈구장인 잠실학생체육관이다.



서울 SK 문경은 감독이 18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2020 프로농구 서머매치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방에서 경기를 앞둔 안영준(SK)은 “코로나19 때문에 팬들 없이 경기를 하면서 많이 허전했다”며 “우리는 팬이 있을 때, 더 잘하는 팀이다. 빨리 팬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

자유계약(FA)을 통해 KCC 유니폼을 입은 유병훈은 “나를 포함한 이적생들이 팀에 잘 적응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포인트”라며 “다른 비시즌보다 훈련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겠

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장소 변경, 일정 변경, 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스

KOVO컵, 악수 대신 목례·선수 제외 전원 마스크 착용

세부 방역 체계 공개

한국배구연맹(KOVO)이 22일 제천체육관에서 막을 올리는 2020 제천 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 대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KOVO는 18일 컵대회에서 실시할 세부 방역 체계를 공개했다.

우선 경기장 입장 시에는 선수단, 관계자, 관중의 입장 동선을 분리한다. 제천체육관 내 3개 출입구를 전용 게이트로 활용해 남문은 관계자, 북문은 선수단, 동문은 관중들만 입장에 접촉을 최소화한다.

선수들은 출입구 바로 안에 위치한 선수대기실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바로 경기장에 들어선다.

경기장 1층에는 관중석을 설치하지 않으며 동문으로 입장한 관

중은 바로 2층으로 이동한다.

전 출입구에는 스마트 방역 게이트가 설치된다. 스마트 방역 게이트는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유무가 자동으로 체크되며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소독제가 안개 분사돼 경기장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게 소독을 실시한다.

관중에게는 마스크와 항균마스크 케이스, 마스크를 휴대할 수 있는 손목스트랩 등 방역 키트를 증정하고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 관련 공익 캠페인 영상을 상시 송출할 예정이다.

의심 환자 사전 확인 및 방역 예방 또한 극대화 한다. KOVO가 사전 개발한 자가 감진 앱을 통해 선수단 및 관계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자가 문진표를 스스로 작성해 증상 여부를 자가 진단한다.

관중 입장 시에는 QR코드 전자 출입명부를 활용해 관중 본인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개인별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QR코드 인식기에 인식해야 한다.

선수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 시작 직전 진행되는 선수 간 악수는 목례로 대체한다.

코트 내 선수를 제외한 코칭스태프, 주·부심, 감독관, 기록원들은 경기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 전, 중, 후에는 철저한 경기장 내부 방역이 실시된다. 전문 소독업체가 경기 전, 후 코트와 화장실 비롯한 실내를 구역별로 소독한다. 화장실은 세트타임 간에도 소독이 이뤄진다.

경기 중에는 세트타임 간 암막 커튼, 창문 개방으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광군, 영광FC 전국고교축구연맹전 준우승 환영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고교 축구팀



창단 4년차를 맞이한 영광FC 고등부(감독 이태엽)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경남 합천에서 열린 '제56회 추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4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돌아온 선수단

을 격려하기 위해 '영광FC 고등부 준우승 기념 환영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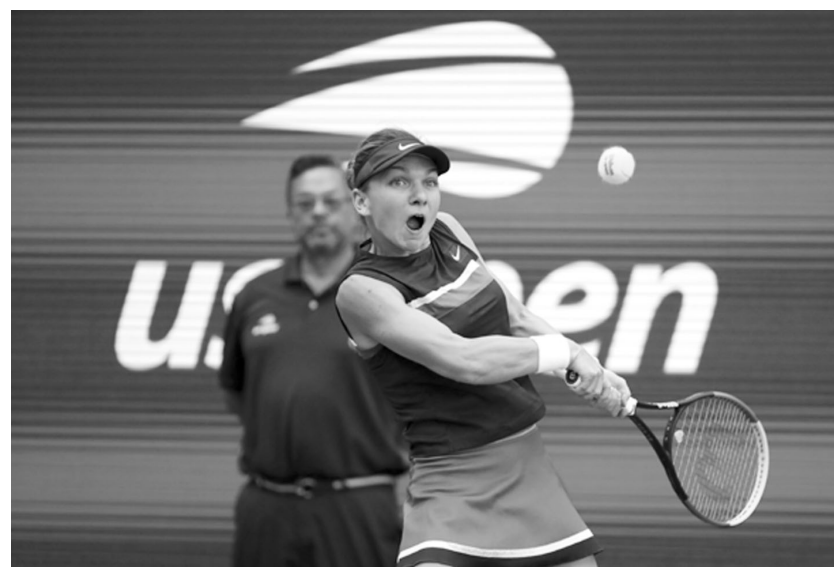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처음 열린 전국 축구대회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결승전은 SPOTV에서 전국으로 생중계 될 만큼 축구팬들의 관심이 큰 대회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산부터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간 우리 선수들이 어렵게 준우승을 거뒀지만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힘든 시기에 있는 군민들에게 큰 희망을 전해 주었다.”면서 “영광FC 고등부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고교 축구팀으로 성장한 만큼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여자 테니스 세계 2위 할레프, US오픈 불참 선언

“나의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



2019년 US 오픈에 출전한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의 모습.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랭킹 2위 시모나 할레프(29·루마니아)가 올해 US오픈 테니스대회에 불참했다.

AP통신의 18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할레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요소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 올해 US오픈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내린 결정이다. US오픈 출전보다 유럽에 남아 훈련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할레프는 2017년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으며 2018년 프랑스오픈과 2019년 윌블던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정상급 선수다.

그는 지난 16일 막을 내린

WTA 투어 프라하 오픈 단식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인해 선수들의 US오픈 불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US오픈은 이달 3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다.

여자 단식의 경우 세계랭킹 8위 이내 선수 중 6명이 불참을 결정했다.

세계랭킹 1위 애슐리 바티(호주)와 지난해 US오픈 우승자 비앙카 안드레스쿠(6위·캐나다), 엘리나 스비톨리나(5위·우크라이나), 키키 베르테스(7위·네덜란드), 벨린다 벤치치(8위·스위스)가 US오픈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쉴레이(56위·대만)와 프리실라 훈(134위·호주)도 US오픈을 건너뛴다.

남자 단식에서도 세계랭킹 2위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 2016년 US오픈 우승자 스탠 바브링카(17위·스위스), 가엘 몽피스(9위·프랑스), 닉 키리오스(40위·호주)가 불참을 선언했다.

뉴스스

추신수, 2경기 연속 침묵...샌디에이고전 4타수 무안타

시즌 타율 0.241→0.226으로 내려가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연속 침묵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벌어진 2020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추신수는 이틀 연속 무안타에 그쳤다. 추

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1에서 0.226(62타수 14안타)으로 내려갔다.

1회말 첫 타석에서 상대 우완 선발 잭 데이비스를 상대한 추신수는 초구 슬라이더를 노려쳤으나 2루 명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3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중견수 뜬공을 쳤고, 5회말 2사 후에도 중견수 플라이로 돌아섰다.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샌디에이고 좌완 볼펜 투수 맷 스트랩과 대결한 추신수는 볼카운트 2B2S에서 5구째 삼구에 헛스윙을 해 삼진을 당했다.

추신수는 9회초 수비 때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텍사스는 샌디에이고에 4-1로 대패했다.

텍사스는 4안타에 그친 반면 샌디에이고 타선은 홈런 세 방을 포함해 장단 11안타를 몰아치며 텍사스 마운드를 두들겼다.

2연패에 빠진 텍사스는 시즌 11패(10승)를 기록했다.

“빈티지 류” 몬토요 감독, 오늘도 에이스 류현진 칭찬

류현진, 13일 볼티모어전 6이닝 1실점...시즌 2승

“정말 잘 던지고 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 찰리 몬토요 감독이 ‘에이스’ 류현진의 호투에 박수를 보냈다.

류현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 오리올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 선발 등판해 6

이닝 4피안타 1실점 쾌투로 시즌 2승(1패)째를 수확했다.

올 시즌 첫 무사사구 경기를 펼치며 시즌 평균자책점은 3.46까지 끌어내렸다.

개막 후 2경기에서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부진했던 류현진은 8월 들어 에이스 모습을 되

찾았다.

6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부활을 예고한 뒤 12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QS, 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했다.

그리고 이날은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특유의 칼날 제구를 선보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